

●일일스터디_표준안

이름 / 언론사 / 작성날짜

순번	기사 제목/뉴스 헤드라인	분야	비고
1	노태약, 선거前 3개월간 34일만 출근... 근무한 날 절반은 4시간 이하 머물러	사회	
2	李대통령 지지율 57%...4개월만에 60% 밀돌아	정치	
3	11일만에 또...SK하닉 청주공장 화재, 4000명 대피-8명 병원 이송	경제	

(1)기사/뉴스요약

6.3 지방선거 본투표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가장 심각했던 서울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가 3일 오전부터 투표용지가 부족한 조짐이 있었음에도 허둥지둥하며 제때 대응하지 못한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다. 또 지방선거 관리의 최종 책임이 있는 노태약 당시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거 직전 3개월간 법정 근무일 60일 중 출근한 날이 절반가량인 34일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는 12일 3차 회의를 갖고 본투표 당일인 3일 송파구 선관위 상황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진상규명위에 따르면 송파구에서 투표용지 부족 조짐이 처음 보고된 건 이날 오전 11시 50분 구 선관위 직원이 예상보다 높은 투표율을 확인하고 예비용 무번호 투표용지 준비를 요청하면서다. 서울시 선관위는 오전 11시 56분 무번호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부여하기 시작하며 투표용지 추가 배분 준비에 나섰다.

하지만 오후 들어 관내 투표소들에서 추가 투표용지 요청이 속출하며 현장은 혼돈에 빠졌다. 투표용지를 배분해야 할 선관위 직원들이 모두 일련번호 부여 작업에 투입되면서 배송 체계가 마비된 것. 투표용지 부족 상황을 가정한 매뉴얼은 없었고, 직원들은 일련번호 부여 장비 사용법도 숙지하지 못한 상태여서 혼란은 더욱 커졌다. 중앙선관위 등 상급 기관에 상황 보고도 이뤄지지 않았다.

그 결과 오후 4시 30분부터는 사회복무요원까지 배송에 투입됐고, 투표소를 지켜야 할 공무원이 선관위 사무실로 투표용지를 받으러 가는 상황도 벌어졌다. 투표용지 일련번호 기입은 투표소 현장에서 수기로 이뤄졌고, 배부 시 서류 작성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관내 투표소 15곳에서 최장 105분간 투표가 중단됐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상급 위원회의 현장 지휘권이 전혀 발동하지 못했고 신속한 보고 체계도 갖춰지지 않았다"며 "총체적 부실"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이 중앙선관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태약 당시 중앙선관위원장이 3월 3일부터 선거일(3일)까지 법정 근무일 60일 중 선관위 업무를 본 날은 34일(57%)이었다. 출근하지 않은 날 중 3일은 행사 참석, 언론사 인터뷰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출근한 날도 청사에 머문 시간이 반나절(4시간) 이하인 경우가 15차례였다. 통상 대법관이 겸임하는 중앙선관위원장은 비상근직이지만, 노 전 위원장은 3월 3일자로 대법관을 퇴임한 상황이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12일 노 전 위원장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합수본은 조만간 노 전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2) 기사/뉴스요약

6.3 지방선거 이후 첫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57%로 3주 전보다 7%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갤럽이 9~11일 조사해 12일 공개한 여론조사(전화면접 방식·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 3.1%포인트·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이 대통령 지지율은 57%로 집계됐다. 지난달 22일 공개됐던 직전 여론조사 국정지지율(64%)보다 7%포인트 낮아진 것. 부정 평가도 같은 기간 28%에서 35%로 올랐다. 한국갤럽은 “대통령 직무 긍정률이 60%를 밑돌기는 4개월 만”이라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여파를 반영했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41%, 국민의힘 29%를 기록했다. 양당의 지지율 격차는 3주 전 23%포인트 차에서 12%포인트 차로 좁혀졌다.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시각으로는 응답자의 67%가 ‘참정권 침해’, 25%가 ‘부정선거 시도 증거’라고 답했다. 전면 재선거에 대해선 찬성 44%, 반대 48%로 팽팽했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9%로 3개월 전 조사 때보다 8%포인트 올라 1위를 차지했고 이어 한동훈 의원(8%),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7%), 김민석 국무총리(5%) 등 순이었다.

3) 기사/뉴스요약

12일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불이 나 직원 8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달 1일 불소 누출을 동반한 화재 사고 이후 11일 만에 또 벌어진 사고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0분경 SK하이닉스 청주 4캠퍼스 내 M15X 2층 가스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작업자들에 의해 자체 진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직원 8명이 어지러움 등을 호소해 SK하이닉스 청주공장 내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직원 4000여 명이 긴급 대피했다.

해당 공장에서는 이달 1일에도 사고가 있었다. 10여일 만에 반복된 사고에 공장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시엔 M15 공장과 M15X 공장을 연결하는 6층 가스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직원 11명이 가스 배관 캐비닛에서 누출된 불소에 노출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SK하이닉스는 이날 가스 관련 작업을 하던 중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파악 중이다.